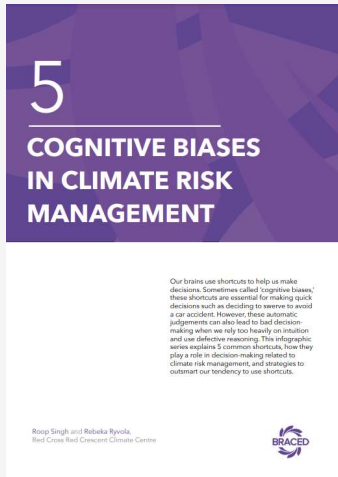


기후 리스크 관리의 인지 편향

K-Risk 발간편집 위원회



목차

1. 계획상의 오류 (2022년 봄호)
2. 투입 휴리스틱 (2022년 여름호)
3. 가용성 휴리스틱 (2022년 겨울호)
- 4. 낙관주의 편향 (2023년 봄호)**
5. 단일행동편향 (2023년 여름호)

※ 본 기사는 좌측 문헌의 단순 번역기사로서 K-Risk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K-Risk

※ 상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문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4. 낙관주의 편향

나는 늙은 것 같지 않아요! 빠른 게임도 나쁘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인가?

낙관주의 편향은 자신이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할 리스크가 다른 사람보다 낮다고 인식할 때 발생한다. 사람들은 리스크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 정보에 따르면 리스크가 높다고 해도 지나치게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여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낙관주의 편향은 (평소에)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인식할 때 일어날 가능성이 더 큰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리스크에 대해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것이 기후 리스크관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폭염이 지속되는 동안 사람들은 종종 낙관주의 편향을 보인다. 폭염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은 종종 자신에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질병과 열의 영향에 대한 취약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노인들도 이런 지식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 2009년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가 더위에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나 처방받은 약물이 더운 날씨에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노인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러한 **멘탈숏컷(mental shortcut)**¹⁾은 조직 차원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종종 '우리 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리스크 요소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인식하는 '계획 오류'와 관련이 있다.

이 인지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낙관주의 편향은 개인적으로 줄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개인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에게 자신과 친한 친구를 비교하도록 요청했을 때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추정할 때 낙관주의 편향이 없었다. 계획의 오류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관점을 모색하여 '**외부의 관점(outside view)**'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은 '**예견된 사후 인식(prospective hindsight)**²⁾' 연습을 통해 계획한 일이 실패했다고 상상한 다음 실패할 수 있었던 모든 가능한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다른 방법으로는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는 계획의 잠재적 리스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1) "Mental shortcut"은 일상 생활에서 정보를 처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간단하고 빠른 사고 방식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이러한 "mental shortcut"은 우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Mental shortcut"은 흔히 "휴리스틱(heuristics)"이라고도 불린다. 휴리스틱은 다양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규칙 또는 방법이다. 이러한 휴리스틱은 정보의 부족, 시간 제약, 복잡성 등과 같은 제약 요소로 인해 사용되며, 주관적인 판단이나 근사치에 의존할 수 있다. 휴리스틱은 주로 경험, 직관, 유추, 패턴 인식 등을 기반으로 한다. "Mental shortcut"은 빠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지만, 때때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휴리스틱 오류는 시스템적인 접근과 균형 잡힌 판단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는 휴리스틱만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분석과 판단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by ChatGPT)

2) "Prospective hindsight"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예견된 사후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용어에 정식적으로 정해진 고유한 번역은 없으므로 다른 용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예후 편향"이나 "선지식 편향"과 같은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들은 어디까지나 의역이며, 해당 개념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원문인 "prospective hindsight"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by ChatGPT)